

스크린 위의 法的 現實

- 映畵를 보면서 하는 법률공부

박 환 일*

I. 무슨 영화를 골라 볼 것인가

누구나 법률공부는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하지만 요령을 구사하기에 따라서는 재미있게 리걸 마인드를 터득할 수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TV의 법률 퀴즈 프로를 시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통사람(법률지식이 없는 연예인들)과 법률전문가(변호사들)의 대응방식을 비교하며 자신의 법률상식을 가늠해보는 것이 시청의 묘미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방법은 전에 본 적이 있거나 대강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영화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법률지식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¹⁾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나 ‘미디어 문화연구’에 의하면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라고 한다.²⁾

영화를 보면서 법률을 이해하려면 좋은 주제의 영화를 골라볼 줄 아는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된다. 다음 몇 가지 좋은 법률영화 또는 법정영화 선택 요령을 알아본다. 다만, 이러한 영화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할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미국법의 관점에서 소개하였음을 밝혀둔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동시대 미국인들의 집단적 꿈과 두려움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이 법률용어인 영화: 시빌 액션(1998)

이 영화(감독 스티븐 자일랜)의 제목은 바로 ‘민사소송’이라는 뜻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기업과 환경소송을 벌이는 어느 변호사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³⁾ 주인공 잰 쉐리트만(존 트라볼타)은 포르세를 몰고 다니는 보스톤의 잘 나가는 총각 변호사이다. 그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영화를 법률적으로 분석한 서적은 우리나라의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안경환의 법과 영화 사이』, 효형출판사, 2001; 미국의 경우 Paul Bergman and Michael Asimov, *Reel Justice - The Courtroom Goes to the Movies*, Andrews and McMeel, 1996; John Devir (ed.), *Legal Reelism - Movies as Legal Texts*, University of Illinois, 1996. 인터넷 홈페이지로는 “박환일의 국제거래법 포럼-영화 속의 법률이야기” <<http://onepark.netian.com/Lcine>> 등이 있다.

2) 김성곤, 『영화로 보는 미국 -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의미』, 살림지식총서 007, 2003, 11면.

3) 이 영화는 조나단 하르의 년픽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비대한 모습의 존 트라볼타가 ‘앰블런스 체이서’(인신상해사건 전문변호사)에서 신념에 찬 환경전문 변호사로 변신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인 잰 쉐리트만 변호사에 의하면 인신상해 사건의 전문변호사로서 제일 좋은 고객은 불구가 된 사람, 오랜 고통 끝에 죽은 사람, 사고에 따른 수입의 상실을 가장 많이 주장할 수 있는 40대 전문직 백인 남성이다. 그리고 약간의 소송전술도 필요하다 법정에서 전신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나타나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피고측으로부터 화해(settlement)를 통해 가볍게 2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작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김영사에서 “시빌 액션”이란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소송사건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northshoreonline.com/woburn/woburn.htm>> [2003.7.13]

을 동정한 나머지 感情移入(empathy)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늘 말하곤 했는데 어느 날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했다가 매사추세츠주의 시골 마을에 사는 여인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흔들린다.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은 그 부인은 비슷한 증세로 사망한 어린이가 자기 마을에 여덟 명이나 되어 그 마을 식수원의 오염이 원인인 듯 싶다고 말한다.

젠은 다소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일단 주민들을 위해 강의 상류에 자리잡은 두 식품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회사에 지질조사를 의뢰하고 법원에 데포지션(deposition)⁴⁾을 신청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신문을 계속한다. 물론 피고회사들은 어린이들의 사망과 회사의 활동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잡아떼고 젠은 엄청난 지질조사 비용을 대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값나가는 사무실 집기까지 매각한다.⁵⁾ 피고회사와의 보상금액 차이가 너무 커 화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 회사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지만 소송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는 파산상태의 젠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손을 들고 만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환경청(EPA)으로 넘어가 환경책임법(CERCLA, 일명 “Superfund 법”) 위반을 이유로 두 회사에 폐기물 정화비용으로 7천만달러를 추징한다.

이 영화에서 놀라운 사실은 변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법률지식만 가지고 100% 수입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 변호사도 대형 소송에서 이기려면 은행대출까지 받아가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⁶⁾ 변호사비용으로 승소금액의 40% 이상 받아서 수지를 맞춰야 한다는 것들이다. 또한 이 영화는 환경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 정부의 법집행 소송(law enforcement action)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전자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환경오염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고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정부(EPA)가 CERCLA에 따라 원고가 되어 환경오염자에게 정화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빅 브라더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1998)와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법학도들이 理想으로 생각하는 ‘法の 支配’(rule of law)의 대척점에는 국가권력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無所不爲의 국가기관 ‘빅 브라더’가 그러하다. 권력의 속성은 빅 브라더를 닮았기에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법의 테두리 안에 규제하려는 것이 법률가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편의 할리우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 감독 토니 스코트)와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전자는 미 국가안보국(NSA) 부국장(존 보이트)이 법안에 반대하는 하원의원을 살해

4) 미국 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discovery)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데포지션은 통상 법정 밖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oath)를 시키고 진술한 것을 녹취한 서면에 입회한 법원서기가 서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은 상대방 변호사가 주로 맡아하며 증언을 속기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한다. 데포지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사 없이 실시하고 쟁점에 대한 관련성이 훨씬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법정에서의 변론보다 융통성이 많다.

5) “시빌 액션”의 저자에 의하면 소송천국인 미국에서도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한 해 78만건의 민사소송 중 1.5%에 해당하는 1만2천건이 정식 재판을 거쳐 배심원의 평결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에 힘입어 당사자간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끝까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는 고지식한 사람들뿐이라는 것이다.

6)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을 다루는 법정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벌어지는 것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는 자본과 기술을 갖추어야 소송에 이길 수 있는 벤처사업과 전혀 다를 게 없다.

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영문도 모른 채 손에 넣게 된 흑인 변호사 로버트 딘(월스미스)이 NSA 요원들의 추적을 받는 이야기이다. 첩보위성을 포함한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NSA 요원들은 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그의 전과기록은 물론 비디오 대여 및 은행거래 내역 등이 NSA 요원들에 포착된다. NSA는 딘의 사회적 신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휴대전화, 만년필, 구두, 바지 등 일상용품에도 전파발신장치를 설치한다.

NSA의 공작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로버트 딘은 변호사 수임사건의 불미스러운 일로 로펌에서 쫓겨나고, 딘이 여성 제보자와 만나는 사진을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받은 그의 부인은 남편의 여성편력을 의심하여 그를 집밖으로 내쫓는다. 오갈 데 없는 그가 호텔에 투숙하자 신용카드는 이미 거래 정지된 상태이고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손가방마저 도난 당한다. 그의 주변을 에워싼 NSA 요원의 존재를 눈치챈 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브릴’이라고 하는 정체불명 사나이에게 도움을 청한다. 브릴(진 해크먼)을 만난 딘은 자기 몸에 정보기관의 무선 송신장비가 부착되어 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가까스로 기관원들의 추적을 뿌리친 딘은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가 그의 아들 전자게임기에 들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 들고 브릴을 만나러간다. 브릴은 딘의 처지를 위로하며 그의 아이트로 가서 NSA가 찾고 있는 문제의 증거 테이프를 조사한다. 아니나 다를까 비디오 테이프는 NSA의 고위간부가 하원의원의 살해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브릴은 중동지역에서 NSA의 통신감청 전문요원으로 일하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축출된 전력이 있다.

싸움의 상대와 싸울 방법을 알게 된 브릴과 딘은 비밀공작의 총책임자인 NSA 부국장에게 증거 테이프를 팔겠다고 협상을 제의한다. 실은 문제의 테이프가 중간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만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만 현장을 포위하고 있던 NSA 요원들에게 붙들리고 만다. 딘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다른 사건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던 마피아 두목에게 있다고 말한다. 결국 마피아 클럽을 급습한 NSA 요원들은 사정을 모르는 마피아단과 총격전을 벌이고 마피아의 클럽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FBI 요원들에 의해 사건의 진말이 파헤쳐진다. NSA의 요원들은 이 사건이 국가의 가상적(enemy of the State)에 대한 모의훈련(STO: standard training operation)이었다고 발뺌한다.

한편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는 SF작가로 유명한 필립 K. 딕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무대는 50년 후의 워싱턴이다. 미래에 일어날 범죄(precrime)를 탐지할 수 있고 예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엉뚱하게 범인으로 몰려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지 다소 황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2054년 미국 워싱턴 DC의 경찰청에는 미래범죄국(Dept of Precrime)이 설치되어 있다. 초감각적 지각(ESP) 능력을 가진 3인의 예지자(Precog)가 범죄현장에서 살인을 기도하는 사람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포착하여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붉은 구슬로 보여주면⁷⁾ 미래범죄 전담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미래범죄팀의 존 앤더튼 반장(툼 크루즈)은 붉은 구슬에 나타난 이미지를 가지고 단서를 수집하자마자 치안판사의 승인을 얻어 현장으로 달려간다. 예컨대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걱정에 휘말려 살인을 기도하는 경우라면 그의 이상 기운이 예지자들에게 포착되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수십 분에 불과하므로 미래

7) 세 사람의 예지자가 인지한 내용은 서로 대조하여 둘 이상 합치되는 것만 채택하고 소수인 한 사람의 불확실한 이미지는 폐기하는데 이를 ‘마이너리티 리포트’라 한다. 앤더튼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미래범죄 예방 시스템을 발명한 유전공학박사를 찾아간다. 놀랍게도 예지자들의 소수의견으로 폐기된 것 중에는 실제로 살인하지 않을 사람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미래범죄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니 기록으로 남겨둘 수는 없고, 예지자의 잠재의식 속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므로 앤더튼은 예지자 중의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범죄팀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그 결과 워싱턴 일원에서는 살인 사건이 90%나 줄어들었으며, 지난 6년에 걸친 미래범죄국의 실험이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실험에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만의 하나 인권침해 기타 위법사실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법무부의 대니 워트워 수사관(콜린 패럴)이 파견되어 온다. 워트워가 주목하는 것은 약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앤더튼이 자신의 욕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앤더튼은 경찰국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지만 6년 전에 아들을 잃고 부인과의 별거 중에 있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앤더튼 반장이 예지자들에 의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벌어진다. 한 순간 앤더튼은 용의자로 몰려 동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를 이용하여 경찰국장은 미래범죄국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무부 수사관을 제거하려 한다.

위의 두 영화는 법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첨단정보기기 또는 초능력자를 동원하여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NS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에셜란’(Echelon)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운용⁸⁾하고 있는 것이나, CIA가 1960-70년대에 심령술사를 이용하여 적국의 첩보를 수집하는 비밀작업(일명 ‘스타게이트’ 작전)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일반 시민을 감청·감시할 때에는 일정한 適法節次(due process)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는 NSA 부국장이 어지간한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외부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짜 동의서를 만들어 쓴다. 영화 “마이네리티 리포트”에서는 형식적이거나 치안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다고 하지만 예지자의 점괘가 과연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거니와 조작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은 범죄수사에 최면술이 동원되는 등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 워싱턴, 런던, 마드리드 등의 대도시에서는 우범지역의 거리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용의자가 출현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경찰당국의 컴퓨터에는 범죄용의자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거리의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들의 출현을 탐지하자마자 관할 경찰서에 자동 통보해주기 때문이다.

그밖에 눈의 홍채를 이용한 신원확인도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영화에서 보듯이 백화점에서 고객의 신원을 파악한 후 전에 이러저러한 상품을 구매하였으니 오늘은 어느 코너에 가보라고 권유 방송을 하는 것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래의 소비자는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결국 첨단정보기술(IT)과 데이터베이스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게 될 판이다. 그렇기에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을 처음으로 주장한 미국의 법학자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⁹⁾

8) NSA는 첨단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미국에 대한 테러나 국제범죄의 단서를 캐고 있다. 예컨대 첩보 위성을 동원하여 전화, 팩스의 내용을 감청하고 전자메일을 열어보아 내용 중에 ‘기밀’, ‘대통령’, ‘테러’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을 재분류하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청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NSA가 국제테러 방지보다는 유럽의 첨단 산업정보를 빼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99.10.25자.

9) 빅 브라더가 등장하는 영화는 그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맞서는 시민행동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및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http://www.privacy.or.kr>> [2003.7.14]

제목부터 법률적인 영화: 펠리칸 브리프(1993)

“펠리칸 브리프”(Pelican Brief; 감독 알렌 파콜라)에서 브리프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암송해야 하는 주요 사건의 요지를 말한다.¹⁰⁾ 미국의 權府를 뒤흔든 리포트의 내용은 남부의 유력한 석유업자가 석유채굴을 위해 펠리칸 서식지를 개발하려 하자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뉴올리언즈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라는 것, 3~4년 내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같은 단순한 사실만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려면 현재의 대법관 중 환경보호론자는 배제되어야 하며, 거액의 선거자금을 낸 것을 빌미로 그가 대통령의 대법관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여주인공의 예리한 분석이었다.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미국에서는 흑백분리·인권보호·낙태허용 등의 이슈에서 보듯이 9명의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이 궁극적으로 국가정책을 좌우하게 된다. 삼권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대통령은 자기와 정치사상을 같이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이나 언론에서는 종신직인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되면 대통령이 어느 판사 또는 법학교수를 지명할 것인지 예상하고 후보별로 성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대법원판결의 경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전망한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이 환경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대법관들의 견해를 분석하여 사건의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악마라 해도 변호: 데블스 애드버킷(1997)

영화 속의 변호사 주인공은 항상 正義의 使徒인가. 누구나 법률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다짐 하듯이 무고한 사람을 도와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고 권익을 되찾게 하는 사람인가. 만일 변호사가 돈만 밝히고 죄 지은 사람도 처벌을 면하고 백주에 활보할 수 있게 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 “데블스 애드버킷”(감독 테일러 핵포드)은 마치 중국의 고사인 한단지몽(邯鄲之夢)처럼 미국의 한 시골 변호사가 법정 휴정시간에 잠깐 꿈을 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플로리다의 소도시 게인즈빌에서 주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케빈 로맥스 변호사(키아누 리브스)는 기록적인 64 연승을 거둔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사를 위해 변론을 하는 것이 몇몇까지는 않았지만 연승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반대신문을 통해서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인 여학생이 평소에도 불량기가 있고 그녀의 증언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법정에서 그가 하는 말은 배심원들에게 마치 최면과 같다.

승소를 기뻐하는 케빈에게 뉴욕에서 한 낮선 변호사가 찾아온다. 맨해튼의 로펌에 가서 중요한 사건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밀턴 사장(알 파치노)은 그에게 뉴욕시 보건위생법 위반 사건을 맡긴다. 그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맨션이다. 매리 앤에게 남편의 성공이 비로소 실감나게 느껴진다. 케빈은 집에서 염소를 밀도살해 쓰다가 기소된 유사종교의 흑인 교주를 위하여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특례법을 찾아내고 뉴

10) 영화 “야망의 함정”(The Firm)이 흥행에 성공하자 존 그리섬 변호사의 또 다른 법률소설 “펠리칸 브리프”도 영화로 만들어져 크게 히트했다. 이 제목은 툴레인 로스쿨(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주의 연혁 상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륙법을 가르치는 학교) 대학원생인 다비 쇼(줄리아 로버츠)가 대법관 암살사건의 배후를 암시하는 소송사건을 요약하여 교수에게 제출한 리포트를 가리킨다.

육에서의 첫 사건을 승리로 장식한다.

승소를 기념해 열린 파티에서 매리 앤에게 밀턴 사장이 접근하고, 갑자기 케빈을 서재로 호출한 밀턴 사장은 케빈에게 부인과 가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건을 맡긴다. 언론은 이미 그를 진범으로 단정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케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강박관념으로 다가온다. 이 사건은 소송의뢰인이 “외간 여자와 통정하면 남편의 재산은 부인의 것으로 한다”는 婚前계약을 두려워한 나머지 부인을 살해한 치정극으로 밝혀지지만, 케빈은 내연관계의 여비서를 증언대에 세워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 힘을 쏟는다. 결국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통하여 케빈은 어렵사리 승소를 한다.¹¹⁾

그러나 뉴욕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아내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케빈에게는 법무부의 조사관이 다가와 밀턴의 법률회사가 국제적인 범죄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당국에 협조하라고 제의한다. 따지러 온 케빈을 맞은 밀턴(악마)은 “자신은 무대만 마련했을 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스스로 열심히 연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허영심, 아편과도 같은 이기심에 도취되어 아내도 저버리지 않았느냐고 케빈에게 따져 묻는다. 밀턴은 케빈이 원하는 대로 배심원의 미소, 승소의 희열, 코카인 같은 황홀감, 낯선 여인의 침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법원의 화장실에서 잠깐 동안의 꿈에서 깨어난 케빈은 자기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게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다. 거듭 태어난 그의 자유의지는 성추행 교사의 변호에서 당장 손을 떼게 만든다. 비록 연승 기록이 깨지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기쁘기만 하다. 이처럼 용단을 내린 케빈을 신문에 크게 내쫓겠다고 제의하는 기자의 얼굴이 밀턴(악마)의 얼굴로 바뀌는 것은 그가 또 다른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는 탓이다.

변호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 필라델피아(1993)

변호사는 어떤 직업인가. 두 주인공 앤드류 벤키(톰 행크스)과 조 밀러(덴젤 워싱턴)는 서로를 알잡아 보는 필라델피아의 변호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앤디는 이 도시 최대의 로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변호사(corporate lawyer)이고, 조는 TV 광고를 통해 근근히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변호사(trial lawyer)이기 때문이다.

앤디가 로펌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된 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다. 이를 눈치챈 로펌에서는 AIDS를 이유로 그를 해고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서류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뒤집어 씌워 쫓아낸다. 로펌을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앤디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가망이 없다며 수임을 거절한다. 조를 찾았을 때에도 마침 첫 딸을 낳고 기쁨에 들떠 있던 조는 앤디와 악수를 나눈 것만으로 자신이나 아기에게 AIDS가 전염될지 몰라 꺼림칙해 한다.

조는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앤디를 도와 로펌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기로 한다. 그들이 근거로 삼은 법률은 1973년 직업재활법(Federal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이다. 이 법에

11) 미국법상 형사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수정헌법 제6조), 자신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수정헌법 제5조), 그가 능동적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변호사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케빈은 그의 의뢰인이 살인을 하였다든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無罪 석방을 위해 노력한다. 이 경우 변호사윤리강령(ABA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소송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절대 비밀로 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든가 변호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물론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는 이러한 위증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의하면 어느 고용주든지 자격을 갖춘 장애인(qualified handicapped)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그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앤디와 조는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AIDS 환자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집단의 추정된 특성에 기인한 차별이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배심원들 앞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자 원고와 피고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원고측은 앤디가 훌륭한 변호사로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고용주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측은 AIDS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무수행 능력이 의심스러워 해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정 밖에서는 연일 동성애자 규탄 데모가 벌어지고, 조는 사건의 중심을 AIDS로 몰고 간다. 그리고 “오래 전에 독립선언을 하였던 도시에서 형제애를 발휘하지 않고 되레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역사적인 모순이고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외친다.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로펌이 조직적으로 앤디의 소송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숨겼음이 드러난다. 조는 원고측 증인에 대해 “당신도 게이가 아니냐”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 법정에서 AIDS 환자가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의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이 문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앤디의 병세가 깊어지고 앤디와 조는 마지막으로 앤디가 증언대에 서서 결정타를 날릴 궁리를 한다. 오페라 “앙드레 쉬니어”에 나오는 아리아를 들으며 절규하는 앤디를 보고 조는 전혀 색다른 세계를 느낀다. 과연 앤디는 하늘에서 병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려온 천사인가. 그는 집에 돌아와 끈히 잠든 딸을 안아보며 새삼 가족애를 느낀다.

마지막 법정신문에서 앤디는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로펌에 들어와 선배 변호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술회하고, 그 자신이 “법을 사랑하고 법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정의의 실현(Justice be done)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병세가 악화된 앤디는 그만 법정 바닥에 쓰러지고 이어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앤디가 실력 없는 변호사(mediocre lawyer)가 아니었던 만큼 로펌 측에 밀린 봉급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외에 징벌적 배상금까지 480만불을 지급하도록 평결을 내린다.

영화 “필라델피아”(감독 조나단 님)는 미국 변호사 사회의 내막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첫 장면에서 앤디와 조가 법정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똑같은 변호사(counselor)이지만 조는 소송변호사로서 건축공사장의 먼지로 기침이 심해진 천식환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앤디는 기업변호사로서 대형 건설회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입장을 옹호한다. 전자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광고까지 해가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반면, 후자는 큰 로펌에서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Associate→Senior Associate→Partner→Managing Partner로 승진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로펌은 대부분 조합(partnership, LLP) 형태를 취하므로 소속 변호사의 해고 등 중요 사안은 대표변호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영화 속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로펌의 파트너들이 모두 공동피고로서 참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영화의 결론 부분에서 배심원들이 로펌에 대해 지급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측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actual damage)와 관계없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히 명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미국의 특유한 손해배상 방식으로 그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한 재판장도 배심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로펌의 저명한 변호사들이 법을 잘 알면서도 AIDS로 고생하는 소속 변호사를 불법 해고하고 그의 명예를 짓밟은 데 대해 평범한 시민인 배심원들이 이 같이 응징한 것이다.

이 영화는 법정영화이면서도 예술성이 돋보이는 것은 음악을 통한 주제의 전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영화에는 1994년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트리

트 오브 필라델피아” 등 여러 편의 음악이 삽입되어 있는데, 특히 움베르토 지오르다노가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쉬니어(Andrea Chenier)를 소재로 만든 동명의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¹²⁾가 단연 압권이다. 앤디와 조와 공판 대책을 협의하다가 감상하는, 마리아 칼라스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La Mamma Morta)는 앤디의 심정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소송전략을 가르치는 영화: 어 퓨 굿맨(1992)

법정영화를 열심히 보다보면 소송전략 내지 전술에도 눈을 뜨게 된다. 요즘 알카에다 대원의 수용소로 유명해진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에서 한 사병이 기합을 받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가해자로 체포된 두 사병의 변호를 맡은 법무관 조안 껄로웨이 소령(데미 무어)은 다니엘 캐피 중위(톰 크루즈)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캐피 중위는 사건에 진지하게 매달리기보다는 검찰관과 적당히 타협(bargaining)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능란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대신 검찰관으로부터 20년형을 12년으로 감형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낸다.

껄로웨이 소령은 이 사건은 해병대의 고질적인 기합(Code Red)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고 피의자인 두 사병을 설득한다. 한편 해병기지 사령관 제섭 대령(잭 니콜슨)은 월남전 참전경력을 가진 군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가 보기에 구보에도 낙오하고 피병이나 부리며 전출을 원하는 산티아고 일병(피해자)은 정신이 번쩍 들게 기합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령은 산티아고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소대장더러 그를 손좀 봐주라고 지시한다.

껄로웨이 소령과 캐피 중위는 관타나모로 가서 제섭 대령을 면담한다. 제섭 대령은 적진에서 30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긴장상태를 강조하면서 산티아고 일병이 전출 탄원서를 여기저기 보낸 것을 알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말한다. 캐피 중위는 두 사병이 코드 레드를 지시 받고 살인의 의사 없이 명령받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無罪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섭 대령이나 소대장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그 무렵 관타나모 기지의 부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캐피 중위를 만나 “전출명령은 없었다, 다음날 비행기 시간도 속인 것이다”라고 귀뜸을 해주지만 군사법정에서 직속상관의 비행을 폭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캐피 중위와 껄로웨이 소령은 제섭 대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짤다.

이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캐피 중위와 껄로웨이 소령의 노력은 제섭 대령이 산티아고 일병의 전출을 명령한 적이 없었고 전출명령서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캐피 중위가 법정에서 제섭 대령에 대해 군법회의 증언 차 쿠바에서 워싱턴에 날아올 때 여러 군데 전화한 것을 캐묻는데 이는 이튿날 새벽 전출되어 떠날 산티아고 일병의 옷장에 옷이 그대로 걸려 있던 점, 수십 군데 전출탄원서를 보내고 전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외부에 전화 한 통화 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

12) 유명 로펌의 변호사에서 하루 아침에 에이즈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주인공의 심정이 아마 그럴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귀족의 영지와 저택은 방화와 약탈을 당하고 이에 저항하던 백작부인은 살해되고 만다. 불타버린 건물의 잔해 속에서 몇 가지 물건을 챙기면서 딸 마들렌느는 흐느끼며 노래한다. 그녀는 혁명정부의 검찰총장이 된 과거의 시종에게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국외탈출 기회를 놓친 약혼자 앙드레 쉬니어가 체포되자 함께 단두대에 오른다.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사령관을 잡아넣으려면 보다 결정적인 증거, 즉 본인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캐피 중위는 직선적이고 다혈적인 제섭 대령의 성질을 건드려 스스로 기합을 지시했다고 실토하게 만든다. 결국 의기양양하던 제섭 대령은 졸병 한 사람을 죽게 만든 죄로 구속된다. 며칠 후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할 사람의 불명예 제대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의문은 조직의 관리가 중요한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제섭 대령은 국가관, 안보관이 투철하고 해병대를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반면 산티아고 일병은 구보훈원에서 피병을 부리는 제 구실을 못하던 사람이다. 제섭 대령은 그를 사나이답게 만들려고 해병대식 기합을 주라고 말했을 뿐이다.¹³⁾ 진실의 발견과 애국심, 조직의 단합 등 추상적 개념이 난무하는 이 영화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에 ‘소수의 선한 사람’이라는 원제 “A Few Good Men”이 실감나게 들린다.

치정극이 법률드라마로 바뀌는 영화: 돌로레스 클레이본(1995)

영화평에서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spoiler)이 금기시되는 이유는 反轉의 妙味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영화가 법 규정을 反轉의 모티브로 삼고 있어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없으면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다. 스티븐 킹¹⁴⁾의 동명의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돌로레스 클레이본”(Dolores Claiborne; 감독 테일러 헵포드)이 좋은 예이다.

미국의 북동쪽 끝 메인주의 한 섬 외진 저택에서 노부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다. 그 곁에 국수방망이를 들고 서 있던 하녀 돌로레스 클레이본(캐시 베이츠)은 마침 편지를 배달하러 갔다가 이를 목격한 우편배달부의 증언에 따라 살인 혐의로 체포된다. 뉴욕에서 잡지사 기자로 있는 딸 셸리나(제니퍼 제이슨 리)가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오는데 법정출입 경험 많은 그녀로서는 엄마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한다. 18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돌로레스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딸에게 털어놓는데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게다가 술도 일정량은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는 셸리나가 안타깝기만 하다. 딸이 슈퍼에서 사 온 위스키 ‘화이트 앤 블랙’은 바로 18년 전 사고가 일어난 날 남편에게 권했던 술이 아닌가.

돌로레스가 하녀로 일하는 저택의 여주인은 까다롭기 그지없는 혼자 사는 부유한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정부와 어울리는 것을 알고 자동차에 고장을 일으켜 남편을 죽게 만든 전력이 있다. “불의의 사고가 불행한 여인에게는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여주인의 말에 힘입어 돌로레스는 늘상 행패나 부리고 친딸까지 성추행 하는 남편을 개기일식이 일어나던 날 뒤뜰의 함정으로 유인하여 빠져죽게 만든다.

13) 관할 함대사령관이 코드 레드를 금지하면서 어떠한 벌칙을 내걸었는지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軍刑法을 보면 군대내의 기합은 그것이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이 아닌 한 가혹행위(제62조)의 하나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될 뿐이다.

14) 스티븐 킹은 그의 고향인 메인주를 무대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의 작품은 대부분 영화화되었다. 다음 () 안의 연도는 영화화된 해를 말한다. 예컨대 초능력 여고생에 관한 호러 무비 “캐리”(1976), 잭 니콜슨 주연의 “샤이닝”(1980), 소년들의 시체 찾기 모험담 “스탠드 바이 미”(1986), 소설가를 괴롭히는 스톱커 여인을 그린 “미저리”(1990), 스티븐 킹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가상의 교도소 “쇼생크 탈출”(1994), 유년기의 보석상자와 같은 “하트 인 아틀란티스”(2001)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못된 엄마로부터 탈출하듯 고향을 떠나는 셀리나는 차안에서 담배를 찾다가 돌로레스가 그녀를 위해 녹음해 둔 테이프를 듣고 비로소 진상을 깨닫는다. 더욱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애썼던 생父한테 성추행 당하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엄마의 누명을 벗기려고 가던 길을 되돌린다.

과연 돌로레스는 딸에게 말한 것처럼 남편의 실족사와 도노반 부인의 추락사에 대해 결백한가. 두 사건 모두 物證(hard evidence)은 없고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뿐이어서 피의자가 유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돌로레스가 남편과의 불화 끝에 죽음의 함정으로 유인하고 실족사하게끔 방치한 것은 미국법상 ‘인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부주의하게 방치’한 것으로 살인죄를 구성한다. 비록 친딸마저 추행한 패륜아였지만 술에 만취된 남편이 쫓아오다 빠져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함정이 있는 곳으로 유인한 것은 ‘과렴치한 악한 마음’(abandoned or malignant heart)의 발로인 것이다. 우리 刑法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未必의 故意에 의한 살인이 문제될 수 있다.

도노반 부인의 추락사에 대해서도 거액의 유산을 노린 의도적인 범행임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로레스가 주급 80달러만 받고 10년 이상 묵묵히 일해왔고, 노부인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돌로레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은 상대방의 비밀을 아는 불행한 여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아끼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들이다. O.J. 심슨 사건에서 보았듯이 셀리나가 추천하는 뉴욕의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은 형사가 들고 나오는 어떠한 증거든지 그의 선입견이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임에 틀림없다.

성장소설 같은 영화: 하트의 전쟁(2002)

진지한 주제를 다룬 영화는 어지간한 고전소설보다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더욱이 법률이나 법정이 소재가 되고 있으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의미를 곰곰 새겨보아야 한다. 영화 “하트의 전쟁”(Hart’s War; 감독 그레고리 호블릿)은 포스터만 보면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액션 전쟁영화 같지만, 실은 ‘하트’라는 도련님(콜린 파렐이 미 상원의원의 아들로 나옴)이 2차 대전 때 서부전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수용소에서 명예와 용기, 의무, 희생이라는 고귀한 덕목을 배우게 되었다는 成長小說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 후 파죽지세로 독일로 진격하던 연합군은 1944년 12월 독일군의 반격에 직면한다. 바로 벨기에 아르덴느 숲에서 벌어진 공방전이다. 대대본부에서 행정장교로 복무하던 하트 중위는 지프를 타고 사령부로 가다 매복한 독일군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당시 독일군이 미군으로 변장하고 연합군을 공격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하트는 심각한 연료부족에 처해 있던 독일군 장교로부터 포로심문을 받으면서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연료 보급기지의 위치를 자백하고 만다. 상원의원 아버지 덕분에 후방에서 비교적 편하게 지내던 터라 외투도 군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포로가 된 하트는 군용열차와 도보로 포로수용소로 끌려간다.

하트는 포로 중 최고계급인 맥나마라 대령(브루스 윌리스)으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은 후 사병들의 막사로 배치된다. 장교 막사에 빈자리가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한 달 가까이 포로심문을 받았던 맥나마라 대령으로서는 3일 만에 포로심문을 끝낸 하트 중위가 군사정보를 순순히 자백한 용기 없는 젊은이로 비친 까닭이다.

하트가 들어간 사병 막사에는 포로로 붙잡힌 흑인 조종사 둘이 들어온다. 이들 두 사람은 장교임에도 백인 병사들로부터 노골적인 따돌림을 받는다. 며칠 후 인종차별주의자인 고참이 살해되고 현행범으로 흑인인 링컨 스코트 소위(테렌스 하워드)가 체포된다. 한사코 자기가 죽

인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링컨을 보고 맥나마라 대령은 수용소장에게 戰時 군사법정을 열겠다고 제안한다. 수용소장은 미군포로들이 후송되어 오는 주말 이전에 재판을 끝내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한다. 맥나마라 대령은 예일 로스쿨 출신인 하트를 링컨의 변호인으로 임명한다.

하트는 수용소내 영창으로 링컨을 찾아가 인종차별에 분개하여 싸우다가 잘못해 죽인 것이라고 하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다고 제의한다. 이에 링컨은 코웃음을 치며 백인을 죽이고 싶었으면 고향에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장인 맥나마라 대령이 심한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過失致死는 씨도 안 먹힐 것이라고 고개를 가로 젓는다.

맥나마라 대령으로서는 순진해 보이는 하트가 군사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불안하다. 아니나 다를까 하트는 예일대 동문인 독일군 수용소장이 건네준 매뉴얼을 보고 군사법정이 규정대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인종주의자인 맥나마라 대령은 재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맥나마라 대령은 이를 기각하고 휴정을 한 다음 하트를 밖으로 불러내 그러한 행위는 규정상으로 법정모독이 되고 의도적인 소송지연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바깥에서는 戰線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수용소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抗戰意志를 다지는 맥나마라 대령과 조용히 포로생활이나 하고 있으라는 소장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다. 하트 역시 맥나마라는 미군 상관이지만 웬지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고, 수용소장은 적군이지만 예일 동창이고 미국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생각되어 머리가 혼란스럽다.

그 날 밤 하트가 야심한 시각에 막사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누군가를 따라가 보니 극장 뒤켠에서는 비밀지하 통로를 파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극장에서 군사법정을 연다고 하여 독일 경비병들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맥나마라 대령의 지휘 하에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탈출로를 파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날 평결을 위해 배심원들이 모인 시각에 35명의 특공대가 수용소를 빠져나가 수용소 인근의 무기공장을 폭파한다는 것이 비밀작전의 요지였다.

말하자면 군사법정은 쇼 무대였고 링컨 소위는 가없는 희생양이었다. 마지막 공판 날 검찰관은 흑인의 명예로운 참전을 허용할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정책적 잘못이 있지만 배심원들에게 살인죄에 따른 사형을 요구한다. 이어 최후 변론을 하게 된 하트는 링컨을 변론하다 말고 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뻔히 알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는 없고 수용소 탈출작전은 성공하게 해야 하겠고, 결국 독일군에게 연료 보급기지의 위치를 알려준 죄책감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자 수용소장은 하트를 끌어내 처형준비를 하라 이르고 포로들을 연병장으로 소집해 인원 점호를 한다. 수용소를 빠져나간 특공대가 인근 무기공장을 폭파하는 동안 처형대 위에 선 하트 앞에 독일군 장교 복장을 한 맥나마라 대령이 홀연히 나타난다. 부하들 대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수용소장의 총구 앞에 당당히 나선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 법률가가 취할 행동은 영화 속에서 하트가 행한 그대로일 것이다. 처음에는 법규정대로 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의명분 앞에 굴복하고 자신이 법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만일 맥나마라 대령이 수용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처형되었을 하트로서는 대령이 몸소 보여준 명예와 용기, 의무감과 희생정신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에린 브로코비치(2000)

변호사업무 중에 民事사건은 景氣를 많이 타게 마련이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도 학벌이나 배경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어도 자신의 입지를 굳힌 사람(이런 이를 미국에서는 “American Underdog”이라 부른다)이 있다. 實話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는 스토리가 “시빌 액션” 비슷한 환경문제이지만, 직장을 구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텍스트’라 할 만하다.¹⁵⁾

고졸 학력에 애가 셋씩이나 딸려 있는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는 번번히 일자리를 놓치는데 하루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받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명백한 상대방의 과실이므로 안심하고 있던 터에 피고측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상대로 에린이 의사인 가해자로부터 두둑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이에 흥분한 에린이 욕두문자(영어의 four-letter word)를 쓰는 바람에 패소하고 만다.

에린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다 이긴 소송을 지게 했으니 책임지라”며 일자리를 달라고 때를 쓴다. 하는 수 없이 에드 매스리 변호사(앨버트 피니)는 임시계약직으로 그녀를 채용한다. 에린은 열심히 일을 배우지만, 매스리 변호사는 그녀가 곧 뛰쳐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돈도 안 생기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프로보노(*pro bono*) 부동산 사건을 맡긴다.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부동산거래 서류작성을 해주는 일이다. 에린은 부동산 거래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진료기록과 청구서가 영 마음에 걸린다. 아이를 키우는 그녀로서 상당한 병원비가 첨부되어 있는 사건기록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에린이 가까스로 전모를 파악한 부동산서류는 인근 전력회사(PG&E)가 주민들로부터 시장가격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매도인 중의 한 사람인 켄슨 부부도 병원치료를 받다가 PG&E가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사준다 하여 팔게 된 것이다. 이상한 낱새를 쫓 에린은 현지답사를 하면서 지역발전소가 의료보험도 아닌 진료비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땅도 비싸게 사준다는 데 뭔가 곡절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료카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증세는 핵사 크롬이라는 중금속에 오염된 탕인데 이 물질은 발전기 터빈 내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녀가 현장을 확인하러 다니는 동안 매스리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그녀를 해고한다. 뒤늦게 에린의 활약상을 눈치챈 매스리 변호사는 봉급을 10% 인상하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어가며 그녀를 다시 채용한다.

마침내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중금속 함유량이 발암 위험수준을 넘어섰고 그 동안 전력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푸는 등 *善心*을 베푸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PG&E는 일부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것은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상 주민들이 손해발생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그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해버리는 것을 노린 것이었다.

매스리 변호사는 마침내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전력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한다. 착수금은 없고 승소하면 배상액의 40%를 받지만 패소하면 의뢰인들로부터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린다. 수입이 없는 프로보노 거래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 대규모 公害訴訟으로 발전한 것이다.

아홉 달 뒤 유리한 정보가 어지간히 축적된다. 중금속에 오염된 콤프레서 냉각수가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고 방류되어 부근 일대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도 알아낸다. 손해배상 원고

15) 사실 에린은 보잘 것 없고 흠도 많은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성공을 거둔다. 그것은 에린이 돈도 안 생기는 프로보노 사건이라는 것을 패념치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친 점, 고객들의 신상명세와 전화번호를 외우고 감정의 교류(*sympathy and empathy*)마저 불사할 정도의 열성을 보인 점, 그리고 큰공을 세우고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지 않고 기본적인 보수만 기대한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성실성과 겸손함은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을 하였는데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에린이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때 주문을 받는 웨이트레스가 그녀이다.

4백여명에 대한 데포지션(사전 증거조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매스리 변호사는 그 동안 저축한 돈은 물론 살고 있는 집까지 저당 잡혀가며 마련한 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작정이다. 소송사건이 원고가 634명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자 매스리 변호사는 대형사건의 경험이 많은 파트너와 손을 잡는다. 勢 불리를 깨달은 PG&E 측에서 조정을 제의해 오자 매스리 변호사와 파트너는 충분한 보상을 조건으로 이에 응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는 일류대 출신의 여자변호사를 데려오는데 그녀는 에린하고는 법률지식은 물론 외모에서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은 딱딱하고 사무적인 여자변호사보다 자신들을 속속들이 이해해주며 감정까지도 교류하는 에린을 훨씬 좋아한다.

매스리 변호사와 에린은 의뢰인들을 모아놓고 소송에서 중재로 선회하게 된 배경과 이점을 설명한다. 중재사건은 배심원도 없고 결과에 불복할 수도 없지만, 10년 이상 걸릴 소송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빨리 보상을 받는 게 낫지 않으나며 설득한다. PG&E에서 요구하는 원고 90%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에린은 밤낮으로 주민들을 찾아 집으로 가게로 술집으로 다니며 동의 서명을 받는다. 법원의 조정 결과 마을 주민들은 손배사상 최고금액인 총 3억3천3백만달러(약 4천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매스리 변호사는 번듯한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에린은 매스리 변호사로부터 2백만달러의 보너스 수표를 받는다.

이 영화에서 보듯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이란 개업변호사가 종교·자선의 목적으로, 또는 公民으로서 의무에 기하여 무료 또는 극히 적은 보수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는 公益활동을 말한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성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에린이 파헤치지 않았으면 단순한 부동산 거래로 처리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II. 영화 속의 法律概念 이해

이상의 영화감상 방법은 개인과 국가의 대립관계, 소송당사자간의 파워플레이 등 어느 정도 사전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영화 프로는 비디오 샵이나 인터넷의 VOD를 통해, 골라보거나 재수가 좋으면 공중파 또는 케이블 TV에서 볼 수 있으므로 그 만큼 학습기회는 널려 있는 셈이다.

영화를 보면서 그 동안 법률공부를 하면서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法律概念을 하나씩 마스터해보자.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가 된 사례와 결부시켜 이해하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明白하고 現存하는 危險”: 긴급명령(1994)

영화 “긴급명령”(감독 필립 노이스)은 미국의 인기 스릴러 작가인 톰 클랜시¹⁶⁾의 소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영화화한 것이다. 원작의 제목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미국민을 살상하고 미국에서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 및 국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미 대통령의 발언에서 따왔다.

이 말은 1919년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다룬 미 연방대법원 판결(Schenck v.

16) 톰 클랜시가 책 라이언을 주인공으로 하여 발표한 소설로는 “긴급명령” 외에 “레드 옥토버”(The Hunt for Red October), “패트리엇 게임”(Patriot Games; 이상 세 편은 파라마운트사에서 영화화), “크렘린의 추기경”(The Cardinal of the Kremlin) 등이 있다. 그의 신작 “레인보우 식스”(Rainbow Six)는 게임으로도 히트하였는데 테크노-스릴러의 거장 톰 클랜시는 ‘레드스톰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http://www.clancyfaq.com>>[2003.7.14]

United States)에 나온 개념으로 홈즈 대법관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기준은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는 이론과 결부되어 1945년 미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판정할 때(Thomas v. Collins)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1951년 미 정부당국이 공산당원의 활동을 단속할 때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 해악이 중대할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Dennis v. United States)이 나오면서 이 기준은 폐기되었다. 그 후 이 기준은 ‘明白하고 切迫한 危險’(clear and imminent danger)으로 약간 변형(Brandenbur v. Ohio, 1969)되어 언론의 자유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일까. 카리브 해상의 호화요트에서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 일가족이 앙심을 품은 콜롬비아의 마약조직에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분개한 미국 대통령은 안보담당 보좌관, CIA 국장, FBI 국장과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마약 범죄는 미국의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대통령의 측근은 CIA 부국장에게 비밀리에 소규모의 특수요원만으로 복수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톰 클랜시 소설의 단골 주인공인 잭 라이언(해리슨 포드)이 상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콜롬비아산 마약 퇴치를 위한 예산승인 요청을 하면서 콜롬비아에서는 議會의 동의 없이 이란-콘트라 케이스와 같은 군사작전을 펴지 않을 것임을 의원들에게 약속한다. 그럼에도 CIA 부국장은 準軍事要員을 동원하여 현지의 마약 카르텔과 생산공장을 파괴하도록 한다. 그러나 피살당한 대통령의 친구가 마약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들어 CIA와 현지 실력자의 밀약에 따라 현지에서 작전 중이던 특수부대원들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내막을 알게 된 잭 라이언은 단신 콜롬비아로 날아가 희생된 특수부대원들을 구하려고 한다. 자칫 워싱턴의 모함에 빠질 뻔하지만 잭 라이언의 용기 있는 행동에 힘입어 포로들과 함께 헬리콥터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가까스로 워싱턴에 귀환한 잭 라이언은 대통령의 만류도 뿌리치고 사건의 진말과 非理를 폭로하기 위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다.

이 영화의 중요한 법률 이슈는 과연 “미 대통령은 단독으로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이다. 미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의 선전포고(declaration of war) 없이도 미국에 현실적으로 적대행위(actual hostilities)를 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지만 9·11 사태 전까지만 해도 의회는 2년마다 군사비 지출(military appropriation)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 왔다. 특히 미 CIA에 대하여는 예산통제가 엄격했다. CIA는 냉전시대 때부터 외국에서 정부 진복, 쿠데타 등 비밀작전(covert operation)을 수행해 온 전력이 있으므로 상원 정보감독위는 CIA의 예산을 철저히 통제하였다.¹⁷⁾

미국 헌법상의 “民兵隊”(militia): 함정(1999)

워싱턴 근교 레스톤시의 한적한 주택가 알링턴가(마크 펠링턴 감독은 원제 “Arlington Road”를 여기서 따왔다)에서 피를 흘리는 소년을 구해준 인연으로 이웃에 사는 대학교수 마이클 패러데이(제프 브리지스)와 소년의 아버지 올리버 랭(팀 로빈스)은 절친한 사이가 된다.

마이클은 대학에서 미국 역사와 테러리즘에 대하여 강의한다. 마이클은 홀로 아들을 데리고

17) 의회의 규제와 간섭은 미 행정부가 인도차이나 밀림지대에서 준동하는 공산 게릴라를 퇴치하겠다고 소규모 부대를 파견한 것이 발단이 되어 베트남 전쟁으로 에스컬레이트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다. 톰 클랜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 스카웃 같은 잭 라이언이라는 모범적 인물을 내세워 권력자의 측근일지라도 대통령 개인보다는 미 헌법과 국민에 봉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살면서 FBI 수사관으로 있던 그의 아내가 테러 방지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마이클은 좋은 이웃으로만 알고 있었던 올리버 랭에게서 여러 가지 수상쩍은 면을 발견한다. 동부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펜실베이니아 대학 78학번 동창회의 우편물이 오고, 얼마 전 자살폭탄 차량이 연방건물에 돌진하였던 세인트루이스 출신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 더욱이 올리버는 그를 보고 못된 정치인은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정부 당국자가 마이클 부인의 죽음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이야기한다.

마이클이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올리버의 본명은 캔자스주 출신으로 대학 다닐 때까지의 본명은 윌리엄 페니모어였으며, 올리버라는 이름의 동향사람이 펜실베이니아 대학 졸업 후 총기오발 사고로 죽자 1981년 그의 이름을 따서 개명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는 왜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며 굳이 자기 이름을 바꾸려 했을까. 마이클은 마을 도서관에서 캔자스 지방신문을 마이클로 필름으로 검색하다가 올리버 랭 아니 윌리엄 페니모어의 전과를 발견한다. 그가 16살 때 파이프 폭탄으로 토지관리국의 폭파를 기도했다가 붙잡혀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기사였다.

어느 날 올리버가 마이클에게 이웃의 뒤나 캐고 다니지 말고 당당히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호통을 친 후 마이클과 올리버는 팽팽한 긴장관계로 발전한다. 마이클은 올리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이클은 보이스카웃 캠핑을 떠난 아들을 데리러 간 올리버가 폭발물을 싣고 FBI 본부로 가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FBI 본부로 미친 듯이 달려간다. 마이클은 막상 문제의 뱅에는 아무 것도 실려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올리버의 흉계를 깨닫는 순간 FBI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그의 차 트렁크에서 폭발물이 터진다.

이 영화에서 올리버의 정체가 드러난 장면부터 마지막까지는 反轉의 연속이다. 마이클은 폭탄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올리버의 흉계에 빠져 폭발물을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로 간 셈이다. 자연히 이 사건의 수사결과는 대학교수가 FBI 요원이었던 부인의 순직을 억울해 한 나머지 FBI 본부를 폭파한 것으로 발표된다.

이 사건에서 올리버 랭은 민병대의 지휘자급 인물로 그려져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民兵隊’(Militia)의 전통이 맥맥히 살아 있다. 이들은 본래 독립전쟁 당시 짧은 시간 내에 동원되어 영국군과 싸웠다는 의미에서 “分秒의 사나이들”(Minutemen)이라고 불리곤 하였는데 미국 헌법에서도 그 정신을 기려 제1편 8절 제15, 16항 및 銃器소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서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에는 물론 정규군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도 있지만, 각주에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주민들로 민병대가 구성되어 군사훈련도 하고 유사시에는 작전에 투입되기도 한다. 그런데 민병대는 자기 고장의 자치권, 자체방어 능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물로서 미헌법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의 총기소지와 함께 이를 개폐할 수 없는 초법률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역사적인 유래 타인지 아직까지도 연방정부(Establishment)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많으며 심지어는 유엔 기구가 미 정부와 결탁하여 미국을 植民地化(?)하려 한다고까지 믿고 있다(멜 깁슨 주연의 영화 “컨스피러시”에도 나오는 대사이다). 실제로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를 감행한 범인은 미시간 민병대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表現의 자유”: 래리 플린트(1996)

체코 출신의 밀로스 포먼 감독이 만든 “래리 플린트”(The People vs. Larry Flynt)는 1997년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가 미국식 자유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감독의 출신이 선입견으로 작용한 탓만은 아니다.

1970년대 초 신시내티에서 허슬러 고고 클럽을 운영하던 래리 플린트(우디 해럴슨)는 클럽의 스트립쇼를 광고하기 위해 성인남자를 위한 소식지를 만들 생각을 한다. 그러나 누드 사진만 실는 것은 불법이므로 적당히 기사를 섞은 플레이보이 비슷한 포르노 잡지(skin mag)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래리 플린트의 지론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그들의 성기도 아름답게(?) 지으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소매상들이 이 잡지를 드러내놓고 팔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잡지 반포가 늘어난다. 마침 재클린 오나시스가 휴양지에서 全裸로 일광욕하는 사진을 입수하여 게재한 덕분에 허슬러는 단번에 2백만부 이상 매진되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다. ‘性域’을 무시한 그의 잡지제작 때문에 그는 음란물 유포와 조직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된다.

법정에 선 그를 위해 약관의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알랜 아이작맨(에드워드 노턴)이 시민의 기본권(civil liberty)이 위협을 받는 일이라며 기꺼이 변호를 맡는다. 신시내티 해밀턴 카운티 법정에서 검사는 래리가 만드는 잡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산타 클로즈까지 성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등 부끄러운 사진과 그림을 게재하였다며 음란에 관한 지역정서(communitary standard)를 해쳤다고 공박한다. 이에 맞서 래리 플린트 측은 허슬러가 다른 성인용 잡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검사의 논고는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 풍기단속을 빙자한 검열이라고 반박한다.

래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는 변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하고 판사는 래리에게 25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그는 無罪 석방되면서 “살인 현장을 찍은 시사잡지가 풀리처상을 받는 판에 누드 사진을 실는 것이 왜 불법이냐”고 기염을 토한다. 래리는 조지아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저격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는다. 신변의 불안을 느낀 그는 헐리우드 비벌리힐즈의 맨션으로 이사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모르핀 주사를 맞기 시작한다.

래리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케네디 암살범 찾기에 1백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거는가 하면 존경받는 종교지도자 제리 폴웰 목사가 모친과 동침하였다는 거짓 고백 기사를 잡지에 실는다. 이에 제리 폴웰 목사가 버지니아주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4천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래리는 그의 잡지 기사를 허락도 받지 않고 전제하여 모금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맞고소한다. 결론은 특이하게도 래리가 폴웰 목사에게 감정적인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주었으므로 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래리와 의견충돌을 보인 아이작맨 변호사가 사임을 선언한 가운데 워싱턴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상고심 재판이 열린다. 죽기 전에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래리의 호소에 감동한 아이작맨이 다시 변론을 맡아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 비록 페로디 일 망정 公人(public figure)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matter of taste)라 할 수 있느냐,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 1987년 대법관들은 전원일치의 판결로 래리의 손을 들어준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이룬 연방대법원의 재판 장면은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조(Amendment I)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이슈는 폴웰 목사가 근친상간을 하였다는 모욕적인 기사를 함부로 실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은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탐구를 위한 초석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므로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전부 들어보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다.

여기서 래리 플린트와 對比가 되는 것은 폴웰 목사의 소송을 끝까지 후원한 링컨 세이빙즈

의 찰스 키팅 회장이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리며 저축대출조합(S&L)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얻어냈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자산규모 20억달러의 링컨 세이빙즈를 도산시키고, 온통 부실화된 미국의 저축기관들을 公的資金을 투입해 구제(Thrift bailout)하도록 만들었다. 래리 플랜트의 말대로 경건한 척 하는 위선보다는 섹스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중요 정보의 公示”: 폭로(1994)

이 영화(감독 베리 레빈슨)는 마이클 크라이튼¹⁸⁾ 원작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시애틀 소재 멀티미디어 회사에 대한 기업합병을 둘러싸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숨가쁘게 전개되는 기업내부의 역학관계 변화와 이 과정에서 돌출된 성희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침마다 페리 보트를 타고 시애틀로 출근하는 샌더스(마이클 더글러스)는 멀티미디어 전문 회사의 생산부장인데 부사장 승진이 유력시되던 그 대신 외부영입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막상 발령 받아 온 사람은 옛날에 사귀었던 매리더스 존슨(데미 무어)으로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밝혀진다. 샌더스는 그녀로부터 “저녁 7시에 와인이나 한 잔 하자”는 초대를 받고,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CD롬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할 겸 부사장실로 찾아간다. 그러나 매리더스는 그에게 최고급 포도주를 권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유혹한다.

집에 돌아오니 매리더스로부터 내일 아침 8시 회의가 8시 반으로 변경되었다는 전갈이 와 있다. 그러나 화요일 아침 샌더스가 8시 20분 경 회사에 당도해 보니 회의는 이미 7시 반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합병 파트너에 대한 신제품 프리젠테이션이 한창이었다. 파트너는 역정을 내며 CD롬 드라이브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설상가상으로 어젯밤 사건은 그가 상사를 성희롱(sexual harassment)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는 회사측으로부터 텍사스 오스틴으로 전출할 것을 제의 받는다. 그 시각 샌더스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보라는 e-메일이 도착한다.

바로 그날 변호사를 찾아간 샌더스는 사건의 목격자도 없었고, 자기가 그러한 상황을 용납했다는 게 미안해 부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고소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인데, 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3년 간은 생지옥을 겪게 될 것이며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조언을 해준다.

샌더스의 고소를 접한 회사에서는 합병 건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에게 조정을 제의한다. 수요일 샌더스와 매리더스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mediation)이 열린다. 회사측 변호사는 그가 본래 성적으로 무분별한 성향이 있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쓴다. 반면 샌더스의 변호사는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매리더스가 고급 포도주를 미리 주문하는 등 상황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공박한다. 그러나 그 날 현장에서 샌더스가 외부로 건 전화가 오점되었고 누군가 현장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샌더스는 음성 사서함의 소유자를 알아내어 문제의 테이프를 입수해 조정회의 석상에 공개한다. 휴대폰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녹음된 현장 상황은 샌더스가 성폭

18) “슈라기 공원”, “잃어버린 세계”로 유명한 마이클 크라이튼은 이 시대의 키워드를 소설로 멋지게 조형화하는 마술사이다. 영화 “폭로”에는 M&A, 하이테크 산업, 스톡 옵션, 성희롱, 인터넷 전자우편 등 시대의 첨단용어가 등장한다.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매수가 한창일 때 발표된 “Rising Sun”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기업 내부의 현안문제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원제 “Disclosure”는 주인공이 직장내 스캔들을 ‘폭로’했다는 의미보다는 M&A를 앞두고 인수자 측에 중요한 기업정보를 제대로 알렸느냐 하는 ‘정보공개’로서의 의미가 크다.

행의 가해자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목요일 회사의 합병 직후 매리더스는 사임하고 샌더스에 대해서는 회사가 변호사비용을 포함 손해배상을 하기로 타협을 본다. 그러나 샌더스에게 보내온 친구의 전자우편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한다. 회사측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몰아세워 내쫓을 계획임을 알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회사의 컴퓨터에 들어가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운명의 금요일, 합병 건은 성사되지만 문제의 CD롬 드라이브 불량작동은 원래 본사의 고위직에 있던 매리더스의 지시로 야기되었음이 드러난다. 후임 부사장에는 여성 간부가 임명되는데 그 동안 샌더스에게 전자우편으로 경고와 자문을 해준 바로 그 “친구”(Friend)였다.

이 영화에서 제일 화제가 된 것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란 고용과 관련된 장소에서 성적 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발언과 불쾌한 신체접촉 등을 통하여 굴욕감을 주고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말한다.¹⁹⁾ 그러나 문제는 가벼운 농담으로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범죄라 하느냐는 인식이 뿌리깊은 데다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칭 피해자가 범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연기를 능란하게 할 경우 영화에서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뀔 수도 있다.

이 영화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양측이 기업합병을 앞두고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점이다. 이 영화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 싱겁게 끝나버리지만, 의료사고·증권분쟁·노동쟁의 등 전문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중재, 조정 등 소송외의 방법(ADR)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타당성 있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영화의 제목 “Disclosure”는 일과후 사무실에서 성희롱이 자행될 수 있다거나 첨단제품의 생산공정에 불량률이 높은 것을 은폐한 것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합병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합병대상 기업으로서 기업 자산가치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精神異常의 판별기준”: 타임 투 킬(1996)

영화 “타임 투 킬”(감독 조엘 슈마허)²⁰⁾의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미시시피주 캔턴 카운티의 법원 청사로 재판을 받으러 오던 2명의 형사피의자가 기관총으로 살해되는데 범인은 바로 두 젊은이가 강간한 흑인 소녀의 아버지 칼 리 헤일리(사무엘 잭슨)이다. 칼 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제이크 브리겐스 변호사(매튜 매코너히)가 단돈 1천불에

19) 미국에서는 1964년 民權法에서 성희롱을 性差別의 일종으로 처음 규정한 이래 직장 상사와 같이 고용조건 등을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 美연방고용균등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타인에게 성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로 거의 無制限의이다. 예컨대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에게 “얼굴이 예쁘다”고 해도 당시의 상황과 여성이 받아들이기엔 따라 얼마든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1993년 11월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심리적 피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괴로움, 불쾌함을 당한 것으로 족하다”는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 이 영화는 존 그리샴의 처녀작인 동명 소설(A Time to Kill)을 영화한 것이다. 미국 사회의 매우 민감한 흑백문제를 다룬 그의 원고를 어느 출판사에서도 출판하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망의 함정”, “켈리칸 브리프”, “의뢰인” 등 그의 소설이 연속 히트하면서 이 작품 역시 영화로 만들어졌고 소설과 영화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워너 브라더스사는 원작료로 60여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주인공 변호사역을 맡은 매튜 매코너히라는 신인배우는 이 영화를 계기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변론을 맡게 된다.

주지사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버클리 검사(케빈 스파셋)는 칼 리를 중죄에 처함으로써 주민의 인기를 끌고자 한다. 브리겐스는 배심원 중에 흑인을 포함시킬 방법을 찾는가 하면 피고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동을 한 것이니 無罪라는 전략을 세운다. 이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KKK단과 흑인 군중이 충돌한 가운데 브리겐스는 신변도, 가정도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불꽃 튀기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브리겐스는 가족애를 으뜸으로 치는 南部의 정서를 앞세운다. 최종변론 때 브리겐스는 배심원들에게 “전과가 있는 의사에게 일부러 피고의 정신감정을 의뢰했겠느냐”며 그 의사는 검찰이 性폭행했다고 주장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법의 눈도 사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브리겐스는 칼 리의 딸이 어떻게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는 “그렇게 처참하게 능욕 당한 딸이 백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져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아낸다.

이 영화는 미국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브리겐스 변호사가 구사한 소송전략을 보자. 실제 면에서는 피고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절차상으로 흑인 피고는 백인 일색인 배심원들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겠다(change of venue)고 신청하고, 피고의 정신감정을 한 검찰측 증인이 편견을 갖고 있으므로 그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이 영화에서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것은 피고가 의식분열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하는 이슈였다. 미국법상 피고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석방하는 경우는 행위 당시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신이상(insanity)과 약물중독(intoxication), 刑事未成年(infancy) 세 가지이다. 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된 피고는 일단 정신이 멀쩡하다고 추정되므로 피고측 변호사가 정신이상을 주장해야 한다.

정신이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미시시피주에서는 맥노튼 룰(M'Naghten Rule: 이것은 법률이 아닌 판단 기준을 가리킨다)이 적용되고 있다. 즉 맥노튼 룰은 피고가 그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몰랐거나 그의 행위의 본질·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주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인 저항할 수 없는 충동 테스트(Irresistible Impulse Test: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거나 적법하게 행동할 수 없었는가), 더햄(Durham/New Hampshire Test: 정신질환이 없었더라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가), ALI 테스트(미국 법률협회가 마련한 모범 형법안(Model Penal Code)에 의거 정신질환 또는 결함이 있는 피고가 그로 인해 범죄성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의 행동을 법에 맞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었는가)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이 영화는 미시시피주의 주민이나 법률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 변호사가 자원봉사를 자청하고 때로는 도발적이기도 한 보스턴 출신의 여대생(산드라 블록)과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남부지방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또 피고측 정신감정의가 검사에 의해 강간(statutory rape) 전과자라고 망신을 당한 것도 1960년 당시의 미시시피 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여자와 여관에 투숙한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강간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브리겐스가 무죄 평결을 받아낸 것 역시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배심원들의 남부정신에 호소했기 때문이었다.

이 영화는 흑인에 대한 호칭이 흑인들의 인권상황이 점차 개선되면서 니그로(Nigger)에서

흑인(Black),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의 지배를 받는 미국 법정에서 변호사의 판례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로스쿨 학생들은 도서관의 판례집이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없는 변호사들을 위해 재판부가 수궁할 만한 선결례를 리서치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死刑制 폐지론”: 데드맨 워킹(1995)과 어둠 속의 댄서(2000)

영화 “데드 맨 워킹”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헬렌 프레전(Helen Prejean) 수녀의 수기를 극화한 것이다. 원래 “Dead Man Walking!(사형수 입장)”이란 미국에서 사형수를 형 집행장으로 호송할 때 간수장이 붙이는 구렁이다. 동명의 영화는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죄수가 결국 사형 당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사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²¹⁾

헬렌 수녀(수잔 서랜든)는 뉴올리안즈 교외 세인트 토마스시에서 평복 차림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수녀이다. 틈틈이 시도 쓰는 헬렌 수녀에게 한 백인 사형수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가 날아온다. 헬렌 수녀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살인범의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지 못하고 교도소의 사형수 감방(death row)으로 그를 면회하러 간다. 형 집행을 며칠 앞 둔 사형수 매튜 폰슬렛(손 펜)은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공범 대신 사형을 받게 되었다며 헬렌 수녀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실제로 헬렌 수녀의 수기에 소개된, 루이지애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1977년 11월과 1980년 5월 서로 멀지 않은 두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살인 사건으로 이 영화는 전자에서 스토리를, 후자에서는 주인공을 차용하여 각색한 것이다. 전자는 두 형제가 데이트 중이던 10대 남녀를 사탕수수밭에서 등뒤에서 총으로 쏘아 죽이고 여자는 성폭행까지 한 사건이었다. 후자는 마을의 소문난 불량배 두 명이 집에 혼자 걸어가던 여자를 멀리 떨어진 숲으로 납치하여 강간을 한 후 살해하고 사흘 뒤에는 10대 남녀를 유괴하여 남자는 칼로 찌르고 여자는 성폭행을 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교도소 내의 교화사 신부는 헬렌 수녀에게 그런 흉악범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심중팔구 이용해 먹을 속셈이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다. 특히 오랫동안 여자를 만난 적도 없으므로 아주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충고해 준다. 그러나 폰슬렛이 수녀에게 하소연한 것은 자신은 돈이 없어 유능한 변호사를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새 사면위원회와 연방법원에 탄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침내 헬렌 수녀의 노력으로 사면위원회가 열리지만 폰슬렛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기각된다. 헬렌 수녀는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폰슬렛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정신적 조언자(spiritual advisor)로서 마지막 1주간 그를 돕겠다고 나선다. 헬렌 수녀는 끝까지 폰슬렛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성경구절을 읽어준다. 폰슬렛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밤 10시 반 재심신청에 대한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이 통보될 때까지 헬렌 수녀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마지막으

21) 미국에서 항상 법률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사형제도 폐지와 낙태 허용 여부이다. “쇼생크 탈출”에서 주연을 맡았던 팀 로빈스는 뉴올리언즈에서 영화 “의뢰인”을 촬영 중이던 그의 아내 수잔 서랜든이 프레전 수녀의 책을 읽고 영화로 만들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데드 맨 워킹”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텍사스주의 여성 사형수 칼라 페이 터커의 사형집행을 계기로 새삼 화제가 되었다. 칼라 페이 터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각계 각층의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1998년 2월 3일 저녁 텍사스주 헌츠빌 교도소에서 약물주사(lethal injection)를 맞고 38년의 생을 마감했다.

로 고해성사를 하듯 “자기가 남자를 죽이고 여자도 강간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노라고 고백한 후 사형장으로 향한다.

바로 여기서 사형제도의 존재론이 대두된다. 사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살인(미수)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반면 종교인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사형은 배심원·증인·법관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말리기 쉽고, 인종·빈부의 차별이 자행되며 무엇보다도 오판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²²⁾며 폐지론을 펴고 있다.²³⁾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대배심(grand jury)의 기소가 없는 한 사형을 당하지 않으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헌법 제8조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s)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1972년 이래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의 재량은 엄격히 억제되는 반면 자비를 베풀기로 하는 재판관의 재량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일부 학자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威嚇效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면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67년부터 사형집행을 유예(moratorium)하였다가 1976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형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주에서는 사형을 허용할 수 있다” 하여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다. 여기에는 장기 복역수의 급증으로 교도소의 수용능력이 폭발 직전에 이른 각주의 사정이 고려되었다.

2000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어둠 속의 댄서”(Dancer in the Dark)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체코에서 이민 온 셀마(아이슬랜드 출신의 가수 비요크)는 비록 싱크대 철판공장에서 힘겨운 프레스 기계를 다루고 있지만 두 가지 희망을 안고 산다. 하나는 마을 연극반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정교사 마리아 역할을 맡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력장애를 앓고 있는 외아들이 열세 살이 되었을 때 개안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녀의 외롭고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애쓴다. 같은 이민자인 중년부인 캐시(카트린느 드뇌브)는 작업장에서 그녀의 일을 도와주는가 하면 공장 밖에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 노총각 제프도 있다. 싼값에 세 들어 살게 하고 종종 아들도 데리고 노는 경찰관 빌(데이빗 모스)은 그녀에게 하늘같은 존재이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뮤지컬을 좋아하는 셀마에게 공장의 기계소음도 음악처럼 들린다. 집주인이기도 한 경찰관 빌이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해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 후 셀마의 비밀 저금통이 사라진다. 그녀는 빌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빌의 집으로 찾아간다. 셀마는 거의 안 보이는 눈으로 빌과 실랑이를 하다가 빌이 들고 있던 권총으로 빌을 쏘고 만다. 자포자기 상태인 빌이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고 그녀에게 죽여달라고 간청하였기 때문이다. 2천달러를 되찾은 그녀는 제프의 차로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그녀가 흠모하던 체코 출신 뮤지컬 배우 ‘올드리치 노비’의 이름으로 안과수술 예약을 한다.

그녀는 결국 뮤지컬 연습을 하던 마을회관에서 경찰에 구속되고 사건의 외형만을 판단한 배

22) 이러한 논거는 1994년 2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칼린스 대 콜린스’ 판결에서 블랙먼 대법관이 제기한 소수의견의 요지이기도 하다. 최근 DNA(유전자) 증거가 널리 활용되면서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했던 재판이 오류인 것으로 밝혀지고 상급심에서 사형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후진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일관성 있고 공정하며 신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3) 인터넷에는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웹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1996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로부터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Ethics Updates” <<http://ethics.acusd.edu/Applied/deathpenalty>>는 사형제도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과 통계자료, 관련논문 및 서적, 논문주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심원단에 의해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캐시 등이 법원에 탄원을 하여 1심 증거조사가 미진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게 된다. 하지만 셸마는 변호사 비용으로 금쪽 같은 수술비를 써야 한다는 말에 형집행유예 신청을 철회하고 사형집행을 자청한다. 셸마는 “새로운 세상”(New World)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화가 치민 것은 수호천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함에도, 司法正義의 한계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한 일이다.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1심 변호사는 일방적인 증거조사의 허점을 파헤칠 생각은 안하고 피고인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변론이나 늘어놓는다. 재심 변호사도 억울한 살인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보고서도 수입료 2천달러를 못 받게 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 천사 같은 캐시는 왜 언론에 호소할 생각을 못 했을까. 셸마를 사모하던 노총각 제프는 평소 밭에 대한 감정이 나뉘었을 텐데 밭의 위선을 폭로할 생각을 못한다. 이와 같이 주변사람들의 무능력, 무기력으로 결국 셸마는 죽고 만다.

한 마디로 이 영화는 캠코더 촬영을 시도한 덴마크 출신의 신예감독 라스 폰 트리어가 신대륙으로 이민간 유럽인의 애환을 그리면서 가장 너그럽고 인도적인 듯 하면서도 자신들의 체제 유지(특히 경관을 살해한 것)에 냉혹할 정도로 엄격한 미국인을 비판한 작품이라 하겠다.

“기업지배구조”: 반지의 제왕(반지 원정대)(2001)

팬터지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J.R.R. 톨킨(1892~1973)의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이 원작의 스케일 그대로 3부작의 영화(감독 피터 잭슨)로 나왔다. 사실 팬터지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원작이 갖는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편 반지원정대(The Fellowship of the Ring)에는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법률적 코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²⁴⁾

실제로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지상에 평화가 이룩된 것은 절대왕정이 끝나고 근대 시민혁명 이후 권력이 분산된 시기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절대반지를 손에 넣은 실력자가 출현하면 세계대전이 발발하곤 하였다. 겐달프(이안 매켈른)가 프로도(일라이저 우드)를 보고 “절대반지를 악한 군주 사우론에게 뺏기지 말고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민주주의와 3권분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원정대를 구성[連帶]하듯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법론으로 이어진다.

“반지의 제왕”을 記號學으로 풀면 의문들이 쉽게 풀린다. 드라마의 규모를 하나의 기업 - 株式會社로 옮겨놓고 보자. 회사의 절대권력을 오너 내지 지배주주 손에 두어서는 안되고 소수주주들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英美(Anglo-Saxon)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론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와 아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영미에서는 회사의 권력이 소수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을 때 회사가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통제형’ 구조하에서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당해 기업을 좋게 평가하면 株價가 상승하게 마련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질 것이다.²⁵⁾

24) 남아프리카 태생의 옥스퍼드 언어학교수인 톨킨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절대반지를 차지하려고 인간계의 영웅들이 발버둥치면 칠수록 이 세상에는 전쟁과 다툼이 끊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산의 분화구 속에 반지를 던져 넣듯이 절대권력을 제거해야 한다. 절대반지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 놀기 좋아하고 낭만적인 小人族, 바꿔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수중에 있을 때 지상에 는 오랜 平和가 깃들었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이후에 도입한 은행과 대기업의 감사제도를 소수주주들이 선임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도 영미식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도는 절대반지를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른 소인족 친구, 인간들과 힘을 합쳐 한시 바빠 처치할 작정이다. 문제는 과거 세계를 지배할 꿈을 키웠던 인간들이다. 반지 원정대의 몇몇 사람은 프로도의 손에 있는 반지를 탈취할 생각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기업조직에서 경영진과 노동조합·우리사주조합 등으로 조직화된 종업원 대표가 종종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불케 한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암흑의 제왕 사우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11개의 중간반지를 끌어 모으고 자신을 추종하는 흑기사들과 타락한 마법사 사루만을 내세워 사방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다분히 영국인의 관점에서 히틀러식 독재정권을 연상하고 쓴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그 중심세력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인사 배치하는 것은 일사분란한 조직운동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는 “반지의 제왕”이 단순한 판타지 소설/영화가 아니라 앵글로 색슨 사상관념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영화에 무조건 심취할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적합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무엇인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內部統制”: 겐블(1999)

이 영화(원제 “Rogue Trader”; 감독 제임스 디어든)는 유서 깊은 영국의 머천트뱅크 베어링스를 하루 아침에 도산으로 몰고 간 니콜라스(“닉”) 리슨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보여준다.

싱가폴 지점에서 SIMEX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하던 닉 리슨이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었는데 실은 가상계좌를 만들어놓고 손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그러나 리슨이 감춰놓은 에러 어카운트의 잔액이 77억8천만엔에 이르고 1995년 1월 고베 지진으로 동경 증시가 마비상태에 빠지자 리슨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들 부부가 도피행각에 나섰을 때 베어링 은행은 10억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내고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네덜란드의 ING사에 단돈 1 파운드에 팔리고 만다.

베어링 은행의 금융사고는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파생상품 거래가 ‘수퍼스타 비즈니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국의 금융당국은 특정인에게 거래와 결제를 모두 맡기지 말고 거래담당자(front office)와 결제부서(back office), 위험관리부서(middle office)를 엄격히 분리하여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권한을 명시하고 신용한도, 익스포져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승인권자를 따로 두어 감독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경영진이 담당자의 일시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절대로 위험한 거래를 눈감아주는 일이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은행과 증권회사에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두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게 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25) 企業支配構造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에서는 그 접근방법이 다르다. 주거래은행, 기관투자가 또는 종업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組織 통제형’ 구조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는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구성원간의 형평의 유지, 상호협의를 의한 의사결정, 집단의 역할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다. 양자의 차이점은 市場 통제형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조직 통제형은 주거래은행이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차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